

성막을 주신 하나님(출 25-31장)

구약에 나오는 성막은 그 자체가 메시아와 구원의 상징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가득차 있다.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성막의 상징적 의미를 많이 이야기 하고 있다. 출애굽기를 처음 설명할 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라고 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성막이다. 성막(Tabernacle)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한다. 상징이라는 말은 진짜는 아니라는 말이다. 성막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모형(模型)이며 그림자이다(히 8:5). 때문에 지상의 성막은 하늘의 것보다 그 영광과 거룩함에 있어서 비교될 수 없다. 지상의 제사장이 하늘의 제사장과 비교될 수 없으며, 지상의 제사가 하늘의 제사인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될 수 없다. 모형으로서의 성막은 그 자체가 참된 것은 아니고, 참된 것을 지향(指向)한다(Pointing).

반면에 모형은 항상 참된 것과 논리적 유사점을 갖는다. 그 유사점속에서 참된 것의 의미를 더 가르쳐준다. 또한 앞으로 올 참된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면 성막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주어진 약속이다.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지, 그 계획을 배운다. 또한 불완전한 모형을 통하여 더 나은 참된 것을 바란다. 그러나 참된 것이 올 때까지는 그 모형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참된 것이 왔을 때 비로소 이제까지 있었던 모형의 의미를 더 완전하게 깨닫게 된다.

먼저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막의 의미를 보기로 한다. 첫째,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심을 상징한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족별로 성막의 사면에 대하여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Tent의 중앙(中央)에 하나님의 Tent가 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백성들과 똑같이 Tent에서 거하는 하나님이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Tent를 거함 때, 그 백성들도 Tent를 거두고, 하나님이 Tent를 치면, 그 백성들도 따라서 Tent를 친다. 이와같이 백성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출애굽시대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만물을 지으신 다음, 한 곳 에덴을 지으셨다. 이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였다고(창 2,3장).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한 곳을 잃게 되었다. 족장시대에도(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물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지만 극히 제한적인 교제이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때에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성막을 중심으로서 비로소 에덴과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를 주셨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에 와서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Tent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Tent가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후로는 그 땅의 한가운데에 성전이 지어진다. 첫과 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적 표현이라면 성전은 그 한가운데 계셔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Tabernacle하신다). 그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분이 곧 임마누엘이라고 증거한다(마 12:3). 곧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자기 백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을 거닐고 계시는 사건은 우리중에서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가 와 계신 것을 나타낸다. 나중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그 곳에 금은 보석이 많아서가 아니고, 거기에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중요한 면은 그 곳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때문에 천국인 것이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데에만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하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 본 사람들은 이 말 속에 있는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아담이 형 에사의 복수에서 피하여 도망갈 때 벳엘에서 만난 하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이요, 두려워서 애굽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다. 모세가 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성막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Channel)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받은 것이다**.

다짐과 화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끝남을 의미한다. 가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교통수단이 없었다.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인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택하시어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주셨다. 솔로몬때에 성전이 지어져서 그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그 곳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의 교제의 방법을 정해 나가셨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지낸 것이 나오지 않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를 지냈다. 물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면에서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앞에 피범람이 없는 나아갈 수가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교제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였듯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야 말씀하신다(요 14:6). 또한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신다(요 10:9).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성막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제사를 지내어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물론 그들은 지금 우리가 알듯이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자(예수님의 그림자:성막)에 대한 믿음의 Quality가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제사 그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히 10:1-4). 그러나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 전파된 "유일한 길"을 믿는 믿음은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이다.

세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즉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오,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앞에 가려면 번제단, 물두멍, 두 개의 휘장을 지나야만 하며, 그 곳도 일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Poityhress).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게되며, 대제사장조차 까다로운 여러가지 정결에 관한 법을 지키고 나서야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조차도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함이었다(레 16:13).

성막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그것을 더럽히는 자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의미를 준다. 첫째 성막이 그토록 거룩해야 하던데, 이 성막이 상징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 크기때문에 이 거룩함이 어겨질 때는 죽음이 초래된다. 우리가 왜 죽을 수 밖에 없는 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할 때 죽음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이어야 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 세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를 증거한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거룩하신 예수님을 죽이시는 사랑이다.

성막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동물로 제사드리는 것은 끝이 난다. 하나님과 우리사이를 가로막는 장막은 벗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성막에 나아가서야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와는 또 다른 면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만나게 되어 심판을 받아 죽을 수 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될 때 부정한 자는 유체는 없기때문이다.

이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에 계셨다. 이 성막의 가장 가까운 사면에는 레위인들이 살았고 그 밖에 열두 부족들이 장막을 쳤다. 이 성막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 그중에도 특히 거룩함을 받은 레위인이 가장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이 세계 계시는 것 자체가 그 백성들에게 특권이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못된다. 레위인 이 세상에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세상과는 다른 생활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렇게 거룩해지도록 부름받은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우리가 매일 죄에서 멀어지며 점점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세상사람들이 못할 수 없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

네째, 성막은 **천국**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땅에 정착해서 살 때, 하나님이 계신 곳도 성막에서 성전이 되었다. 이 성전의 봉헌식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온다(왕상 8:23-53).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상의 이 작은 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사 그 백성들과 만나주심시요하고 봉헌기도를 하였다. 이와같이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곳을 지상에서 상징하는 것이다. 모세도 성막이 식양을 받을 때 하늘의 모양을 받았다고 했다(출 25:40). 히브리서기자도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것의 모형(模型)이라고 증거한다(히 8:5).

성막 그 자체만 보더라도 하늘을 상징하는 것들이 나온다. 법궤에 있는 그룹은 천국에서의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을 상징한다(출 25:18-20; 겔 1). 또한 성소와 지성소의 입구에 있는 장막에 그룹천사들의 수가 놓여 있다. 또한 이 장막의 청색은 하늘의 색깔을 나타낸다. 성막의 가장 핵심부분인 지성소의 법궤안에 있는 십계명은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 내려와 있는 것을 상징한다. 법궤자체도 고대 왕들의 발등상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을 상징한다. 이 법궤 위에는 빈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 2계명과도 일치한다. 이와같이 성막은 천국의 복사판이다.

이 면에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 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그 분이 모르시는 세상일은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큰 일부터 가장 작은 일까지 일일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이 또한 온 우주의 하나님이므로 그 분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분이 이러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참고도서

Durham, John I., Exodus, Vol. 3, Word, Word Books, Waco, 1987.

Kiene, Paul F., The Tabernacle of God in the Wilderness of Sinai, Zondervan, Grand Rapids, 1977

Martens, Elmer E., God's Design: A Focus on Old Testament Theology, Baker, Grand Rapids, 1981

Poythress, Vern S., Understanding the Law of Moses, Manuscrip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1988.

Waltke, Bruce K.,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Lecture note, Outreach, Grand Rapids, 1976.

□ 전편 호에서 성막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이며, 천국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신 거룩한 분임을 상기시킨다. 지난 번에 성막이 상징하고 있는 측면 중에서 네가지를 말한데 이어 이번엔 연속으로 성막이 상징하는 것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다섯째, 성막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다. 성막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한 민족의 신(神)이 아니다. 왕중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또한 그 창조주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과 함께 계신 것을 성막이 상징한다면, 이 성막이 많은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이스라엘에게 못 들어줄 약속이 없다. 그 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막은 말해주고 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모든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치 않으면 기근과 가뭄과 황충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의 근거가 이것이다(신 28장). 하나님은 온 천지의 왕이시라는 것을 성막이 보여 줌으로써 이 약속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채워지는 모든 것은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나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축복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다(마 6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시다. 그 분이 이 작은 존재인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함께 계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섯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한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한 백성과 같이 하신다는 것을 성막이 증거한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위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특권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권을 받은 것이다. 그만큼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의 나라이요, 거룩한 백성이다(출 19:5,6).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은 이 세상과 합해져서는 안되고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일곱째, 성막은 **에덴**을 상징한다.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의 장소이었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던 기쁨의 장소이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난다. 그 에덴의 문은 동편에 나 있다. 거기를 그룹천사들이 지키다(창 3:24). 그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길이 막혀 있다. 성막에 에덴과의 연결점이 많이 있다.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오는 휘장에는 그룹천사들이 수놓아 있다. 그 성막은 문이 동편을 향하고 있다. 지성소에는 생명나무적인 의미를 갖는 두 가지의 것 즉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에덴동산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성막의 지성소도 막혀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인간을 보게 한다. 또 다른 면에서 이 지성소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는 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에덴이 찾아질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보여준다.

여덟째, 성막은 **하나의 Unity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고전 3:16). 그리하여 서로 연합하여 지어진다.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며 지어져 간다(엡 2:22). 베드로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산 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벧전 2:5).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신약에서는 교회가 다 성막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성막은 아름답고, 거룩하며, 흠이 없다. 우리가 교회로서 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다. 교회는 그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클럽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나가며, 주님의 말씀만이 그 표준이 되어서 지어져야 한다.

아홉째, 성막은 **개개인의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받았다. 죄와 모든 부정한 것에서부터 멀어져야 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때문이다(고전 6:15,19).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거하시기 시작했다. 완전한 의미로서 성령님의 내재는 이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개개의 성도들도 성막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게 지어져간다. 우리의 아름다운 길모양으로서의 아름다운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난다(딤후 29:10).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해야 한다(고후 7:1).

열번째로 성막은 **새에루살렘**을 상징한다. 새 에루살렘은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곳으로 끝날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다. 특히 성경에서 상징하는 모양으로도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성막의 지성소는 가로,세로,높이가 다 10큐빗인 정방형이다(성소는 가로 10큐빗, 세로 20큐빗, 높이 10큐빗이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 지성소가 가로,세로,높이가 20큐빗인 정방형이다(왕상 6:20). 새 에루살렘도 가로,세로,높이가 다 일만 이천 스타디온인 정방형이다(계21:16). 정방형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성막과 성소의 지성소는 나중의 새 에루살렘성을 상징한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지만 이 성막이 있을 때는 그곳까지 들어가는 것이 여러가지로 막혀 있다. 먼저 성막의 바깥 뜰도 막이 쳐져 있고, 뜰안에 들어와도 성소에 들어 오는 곳에 장막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막이 또하나 있다. 이렇게 겹겹이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다. 이스라엘의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구별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사이를 막는 장막들이 곧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곳만이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 장막들도 곧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며 몸이 찢기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몸이 찢기면서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가로막힌 장막이 없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지성소안에서 사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다.

열한번째로, 성막은 그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전번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설명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여기서는 그 이외의 면을 설명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요한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킨다고 했다(요 219-22).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다(요 114).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이 구약의 성막을 생각케하는 말이다.

이번에는 간략하게 성막의 중요한 기형들이 상징하는 면을 보기로 한다. 먼저 성막의 크기를 본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 큐빗씩의 정방형이다. 이것은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했다. 성소는 이것보다는 덜 완전한 모양으로 생겨서 한쪽이 20큐빗이다(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0, 20, 10큐빗). 성막들은 더 완전함에서 벗어났다.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0, 100, 5 큐빗이다. 크기가 바깥으로 나갈수록 가로,세로,높이가 다 달라진다. 그러나 성막들도 그 가로,세로,높이의 크기가 단순한 비율로 되어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균형은 이루고 있다. 지성소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올수록 바깥의 것은 안의 것의 불완전한 재현(imperfect replica)라고 볼 수 있다(성소는 지성소의 불완전한 재현, 성막들은 성소의 불완전한 재현).

성막안에 있는 모든 기형들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밖으로 나갈수록 모양은 비슷하지만 훨씬 싼 놋으로 되어 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놋은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백성들을 상징한다.

정금통대는 밤낮에 관계없이 빛을 발한다. 등대의 일곱가지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다섯개의 주요한 별들을 상징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빛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뿐아니라 이 빛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상징한다.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애굽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또한 하늘의 광명체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을 이루는 것으로 하늘의 광명들을 상징하는 일곱개의 가지**는 이러한 시간을 상징한다. 이러한 가지가 일곱개인 것은 **하나님안에서의 모든 시간의 흐름이 일곱으로** 되어있는 것을 말해준다. 한 주일의 일곱번째 날이 안식일이고, 일곱번째 달은 속죄하는 달이고(레 129), 일곱번째 해는 빛과 노예에서 해방되는 안식년이고(신15장), 일곱번째 안식년은 회년이다(레 25장). 일곱가지가 있는 정금통대는 이러한 시간을 상징한다.

정금통대는 살구꽃모양으로 생겼다(출 25:31-39). 성경에서 살구꽃은 지켜보는 시간을 상징한다. 이는 히브리어에 살구꽃을 사키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히브리어 사키드(Watch) 라는 말과 비슷하기때문에 후자(後者)를 나타내기 위하여 전자(前者)를 쓰기도 한다. 또한 이 살구나무는 이상하게도 씩이 나는 것과 꽃이 피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간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여주어 시간의 흐름과 시작이 되었면 그것이 반드시 이른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에베리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면에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었다(렘 11:1,2). 또한 정금통대의 가지가 살구꽃의 형상을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나무의 형상을 했다는 것은 빛과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이것이 에덴동산과 새 에루살렘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며 우리의 빛과 생명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나 우리의 죄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장막에 가려워져 있다.

이것의 반대편에는 **진실병상**이 있다(출 25:23-30). 진설(陳設)이라는 말은 음식을 벌여서 차린다는 뜻인데 진설병의 원뜻으로는 the bread of the Presence이다.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친근한 교제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다. 주인이 손님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나눌 때, 주인이 손님을 공경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의 식사에 초대하여 **같이 교제하고 그의 보호하심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오직 제사장들만 거룩한 떡을 먹을 수가 있다(레 22:1-16). 또한 제사장중에서도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식물(食物)을 주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음식을 채우시는 것을 광야에서 체험한다. 그들은 광야에 있는동안 매일 만나로서 그들의 식물을 삼았다. 이것은 이슬과 같이 왔으며, 서리처럼 보였다고(출 16:13-14).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와 이슬과 곡물을 선물로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음식을 이스라엘에게 제공하시 때조차 앞으로 가나안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하는 교육을 하신다. 가나안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올 때에도 그와같이 내렸던 만나를 생각나게 한다.

진설병은 매일매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상징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도구**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성소의 법규에 보관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면을 상기시켜준다.

예수님께서 이 상주를 드디어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요 648),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셨다.

진설병상의 모양도 의미가 있다.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두배가 긴 직사각형으로 되어있다. 이는 성막들의 작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성막도 한쪽이 100큐빗, 다른 쪽이 50큐빗). 이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있다. 진설병위에 있는 열두개의 떡은 1년의 열두달과 같아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1년의 시간**을 상징하고 또한 **열두부족**을 상징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

성소에 있는 나머지 하나의 기명은 **향단(the altar of incense)**이다. 향단은 성막의 한쪽 끝, 지성소의 입구에 있는 금으로 싸여 있는 조그만 제단이다. 성막에 있는 두제단과 달리 여기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향(香)을 드린다. 이것은 공간적으로는 성소에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지성소에 속한 가장 성스러운 것중의 하나이다(히 93:4). 이 향단에서 향을 태울 때 아름다운 향의 냄새가 지성소와 성소를 다 채운다. 우리가 성막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 보자. 성막 전체에서 두가지 연기가 난다. 성막들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지낼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소에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향단에서의 향이다. 지상에서의 동물을 희생으로 드릴 때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향단에서 나오는 향의 역할이다. 지상에서 드리는 동물의 희생이 향이 되어 세계 하늘까지 이르는 것을 말해준다(성막들-성소-지성소의 관계는 세개의 다른 하늘을 상징하기도 한다. 제1하늘: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제2하늘: 해, 달, 별이 있는 곳, 제3하늘: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신다. 이 제물은 소리가 없는 기도과 같은 것이다(non-verbal prayer). 속죄의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제사장들에 의한 중보의 기도등을 볼 수 있다. 신약에서도 성도의 기도가 곧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고 하였다고(엡 58; 8:3).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드셨던 기도(히 57)와 지금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히:7:25).

성막들은 지구를 상징한다. 제단은 금보다 값이 싼 놋으로 만들어졌다. 반면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은 모두 금으로 싸여있다. 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규빗씩인 정사각형이다. 성막들의 크기도 5의 배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100규빗과 50규빗). 제단의 크기도 전체 성막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크기도 완전하지는 않다. 높이가 5규빗이 아니고 3규빗이다. 이렇게 좀 낮게 되어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단에서 일하기 쉽게 되어 있다.

놋제단과 성막의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도 땅을 상징하는 놋으로 되어있다. 이 물두멍의 주변은 마른 땅을 상징하는 반면에 이 속의 물은 이 땅의 물들을 대표한다. 이 물두멍과 제단이 합하여서 이 땅의 모형이 된다. 제단은 약간 높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특별한 부분으로서 성막 자체를 상징하는 모형이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시나산의 모형이기도 하며,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산의 모형이기도 하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 물로 스스로를 정결케한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로 우리가 정결케 되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법궤와 향단과 진설병, 그리고 놋제단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단과 진설병상과 법궤는 그 높이가 다 1.5규빗이다. 또한 각각의 곳에서 정사각형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서로 기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질서의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와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은 많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 여러가지 상징적인 면이 합하여져서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까지 설명한 것 말고도 훨씬 많은 미스테리를 지니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더 연구하면 할 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나, 그 반면에 아무리 연구하여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성막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 이번호는 주로 Dr. Poythress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필자가 이 분의 것 이상으로 잘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참고도서

Kiene, Paul F., The Tabernacle of God in the Wilderness of Sinai, Zondervan, Grand Rapids, 1977

Poythress, Vern S., Understanding the Law of Moses, Manuscrip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1988.

Waltke, Bruce K.,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Lecture note, Outreach, Grand Rapids, 1976.

Westerholm, S., "Tabernacle"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4, pp.698-706, Eerdmans, Grand Rapids, 1988.